

협회 동정

• UL의 Bono사장 협회 방문

협회는 지난 9월 11일 미국의 비영리 민간안전시험검사기관인 보험업자 시험소(UL) Jack Bono사장 일행의 방문을 맞아 시험소업무와 아울러 UL의 화재·도난·기타의 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시험·검사·인증업무 등에 관해 설명 받았다.

• 제13회 불조심표어포스터 시상

협회가 범국민적인 불조심의 생활화를 위해 마련한 제13회 불조심표어포스터 현상모집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9월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포스터부문엔 90여편이 응모, 이중 홍신풍씨의 「불조심 발밑부터 살피세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9백여편이 접수된 표어부분에선 장귀란씨의 「함께지킨 불조심에 함께 웃는 밝은 생활」이 당선되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스터부문〉▲최우수작 : 홍신풍(종로구 행촌동) ▲우수작 : 김현충(성균관대학교) ▲장려작 : 이우철(영등포구 양평동), 배전무(대구시 수성구), 김민채(강남구 논현동), 이윤승(동대문구 담십리3동), 박정호(양천구 신월2동), 김화경(성균관대학교), 이희숙(인천시 북구 산곡동), 변완근(중구 저동2가)

〈표어부문〉▲최우수작 : 「함께지킨 불조심에 함께 웃는 밝은 생활」 장귀란(중구 만리동2가) ▲우수작 : 「화재발생 봄낮없고 화재예방 너나 없다」 최임길(관악구 신림6동), 「티끌만한 부주의가 태산같은 화재연

다」 이미혜(도봉구 쌍문2동)

• 화재사고 현장실험 실시

협회 방재시험소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작년 11월에 발생한 롯데월드화재사건에 대해 화재진행방향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아 지난 6월 28일 화재현장에서 콘크리트피해조사 및 연기유동 실험 등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화재사건판결을 위한 자료검증 목적으로 피해원인조사가 현장조사로 치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기업체 대상 위험관리 실무교육

협회 방재시험소는 위험관리측면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방재기술을 전달코자 다섯차례로 나누어 삼성그룹의 방재관련 담당자들에게 방재기술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경감키 위해 시작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2박3일 일정으로 안전 및 설비담당간부 80여명에 대해 2차례의 방재교육을 실시했고 방화 및 설비유지, 안전담당자 120여명에게는 각각 9월 6일과 20일, 10월 18일부터 시작해 3일간의 교육이 있게 된다.

실습과 시청각교육을 병행할 이번 교육에선 방재기술이론과 소방설비이론 및 실기, 건축방재와 화재원인대책, 종합방재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 기둥용 가열로 설치

1차공사완공

내화피복철골부재에 대한 내화성능 측정을 위해 작년 88년 11월부터 협회가 새로 시설중인 기둥용 가열로 1차공사가 지난 8월 30일 완공되었다.

유효 가열높이가 3m로 시험체의 모든 면을 가열할 수 있도록 4면에 12개의 경유비너가 설치된 기둥용 가열로는 시험체의 반·출입을 위해 한쪽면을 이동식 구조로 설계해 열릴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화재시 기둥부재에 3백톤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재하장치를 부착했다.

컴퓨터자동제어장치 부착과 기타 전기공사 등 2차공사가 완료되는 12월말부터는 수직가열로와 병행해 모든 건축구조의 내화성능을 측정하는 시험설비를 완비함으로써 방화화시험업무를 더욱 완벽히 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금 전달

협회는 지난 9월 7일 협회와 결연을 맺고 있는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과 강서구 화곡동 소재 천사종합복지원을 방문해 갈탄 3백포와 노트, 과자, 화장지 등 1백 3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태풍 쥬디호와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을 돋기 위해 협회직원이 모은 성금 3백35만여원을 지난 8월 21일 한국일보사에 전했다. ⓥ

보험계 동정

• 해동사 창립36주년 기념식

해동화재해상보험(주) (사장 金孝一)는 지난 8월 25일 본사 제1 회의실에서 창립 제36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20년, 1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식을 하였다.

• 중국보험공사와 업무 협정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사장 주인기)는 중국 유일의 보험기관인 중국인민보험공사(PICC)와 해상보험사고관련 손해사정 등에 대한 겸정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보험계약이 체결된 보험물건이 중국으로 수송도중 해상보험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따른 사고조사, 손해사정, 구상 등의 업무를 중국인민보험공사가 대행케 돼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개선되게 되었다.

• 보험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과 안내장의 담보내용이 중요부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보험자가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명기하거나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면 안내장의 담보내용이 우선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보험사업자가 약관규제법상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보험계약자의 선의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타당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 손보협회 창립43주년 기념식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朴鳳煥)는 지난 8월 1일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회원회사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유공자 6명과 우수직원 2명을 표창했다.

• 전화이용 간편 보상서비스

안국화재해상보험(주) (사장 孫京植)는 피해액 100만원 이하의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가 전화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자의 은행구좌로 보험금이 입금되는 간편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동산종합보험의 카폰사고와 골프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에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자들의 반응을 검토, 연말부터는 더 많은 종목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교통사고 예방활동위원회 운영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협회내에 설치 운영하던 「자동차교통사고 예방대책위원회」를 「교통사고예방활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기획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실무기획반을 설치 운영한다.

• 풍수재 피해보상에 전력

손해보험업계는 지난번 태풍 주디 및 집중호우 등 풍수재로 인한 손해액이 총 2백58억5천여만원(추

정)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신속한 피해보상에 임하고 있다.

현재 공장·시장·공동주택 등 가옥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해 풍수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특수건물의 경우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기타의 건물은 동산종합보험이나 풍수해담보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풍수재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종업원 지주제도 실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사장 鄭夢九)는 기업공개와 관련,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를 위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지난 6월 26일 개최하였다.

한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기업공개 규모는 신주 50억, 구주 40억원이며 공개 후 자산규모는 3백억원을 갖추게 된다.

• 보험사고 대형화

지난 88회계년도(88.4~89.3) 동안 23건의 대형보험사고로 3백 7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물건중에서는 제일시티리스(주)의 산소용접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44억원, 동양나일론의 42억원, 럭키의 30억원, 백양의 1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⑩

소방계 동정

• 내무부 장관 취임

정부는 지난 7월 20일자로 내무부 장관에 金泰鎬씨를 임명했다.

신임 金장관은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서 지난 75년에는 주민등록 번호 신규조립과 일제경신, 반상회의 산파역을 맡기도 했다.

• 상반기 화재원인으로 전기부주의가 으뜸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전국 6개 소방본부에서는 89년도 상반기(1월~6월) 화재발생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각 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도 예년처럼 전기화재가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는 방화에 의한 화재가 수위(2~4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냈다.

발화장소별로는 주택 및 아파트, 공장 및 작업장, 차량, 점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부분의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와 무지, 소방안전점검 미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6개 소방본부에서 4천1백86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백8건, 부상 3백40건, 재산 피해 52억4천4백여만원으로 집계 되었다.

• 내무부 소방국 인사

내무부는 지난 7월26일자로 내무부 소방학교장에 洪淳世 대구소방본부장을, 내무부 소방국 방호과

장(직대)에 崔鍾太 인천중부서장 을, 대구소방본부장에 趙誠冕내무부 소방국 방호과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어 8월 19일자로 인천소방본부장에 崔在洪내무부 소방국 예방과장을 전보 발령했다.

• 소방검정공사 임원 개편

내무부는 지난 8월 3일자로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에 전 경기도 부지사 白世鉉(54세)씨를 임명한 데 이어 8월 19일자로 감사에 유봉규 전 인천소방본부장, 기술이사에 신춘석 검정부장을 임명했다.

• 소방대상물 일제조사

서울특별시 소방본부(본부장 徐成錫)는 급변하는 소방여건에 대응,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소방대상물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소화기설치 기준 이상의 건축물, 공작물 중 1백50m²(음식점은 33m²) 이상의 소방검사 대상물로서 용도 및 위험도에 따라 1급에서 5급까지 분류됐다.

1급 관리대상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고 화재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과다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화재경계지구, 밀집상가지역, 고지대 등이다. 2급은 숙박시설, 재래시장, 유흥음식점(1000m² 이상), 종합병원, 섬유공장(3300m² 이상), 11층 이상 사업장, 지하상가 등이고 3급은 백화점, 유흥음식점(2급제외), 기숙사(600m² 이상), 공장(1500m² 이상), 지하다방(300m² 이상)이며 4급은 지하다방, 음식점(300m² 이상), 복지

시설, 목욕탕, 공장(300m² 이상), 창고 등이고 5급은 1~4급 관리대상 이외의 전대상물이다.

• 위험물 취급자 강습

소방안전협회는 89년 하반기 방화관리자 강습을 실시한다.

강습대상은 방화관리자 2천4백명(9회) 위험물 취급자 1천4백명으로서 강습접수기간은 방화관리자는 9월 20일까지이며 위험물 취급자는 11월 25일까지이다.

• 대형사고 대비 비상체제 수립

서울시는 우발적인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9구조대 및 소방진압부대를 편성, 8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방서, 구청, 건설사업소, 시립병원, 한전, 가스회사 등에 24시간 출동 가능토록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하고 사고발생시 구조 인력과 중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 월동기 취약대상건물

합동소방점검

서울시 소방본부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거나 화재진압 전상취약한 호텔이나 시장, 백화점, 병원, 공장 등 총 9백3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에 관해 합동소방점검을 실시했다.◎